



인생의 축소판, 스포츠의 세계

야구·골프·농구 등 인기종목 '스포츠 에세이'



우리에게 스포츠관련서의 층은 너무나 많다. 비교적 최근들어 스포츠 에세이와 실용서, 마케팅 분야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스포츠 에세이류는 선수나 감독, 해설자들의 인생의 축소판 같은 스포츠의 세계를 그려 일군의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인기종목에 치우친 스포츠 출판의 관심이 앞으로 더 많은 분야까지 고루 확대되길 기대한다.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 야구와 최근 박세리 선수의 PGA '첫승'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골프는 비슷한 점이 많은 경기다. 우선, 방망이나 채로 공을 때리는 경기로 스윙 동작이 매우 중요하다. 잔기술도 필요하나 공을 멀리 보내는 '장타자'가 유리하다. 또한 경기시간이 긴 것도 비슷하다. 여러 날에 걸쳐 오랜 시간 진행되는 속성상, 경기 도중 변화가 무쌍하다. 그래서 야구와 골프는 곧잘 인생에 비유되기도 한다. 스포츠에세이가 두 종목에 집중된 현상 역시 이런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야구·골프에 집중

한편, 스포츠에세이의 필자는 주로 전문적인 관중, 곧 담당기자가 많아왔다. 국흥주의 《운명의 9회말》(한길사, 1979)은 이 방면의 '고전'. 1970년대 큰 인기를 누렸던 고등학교 야구대회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재현했다.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최다우승팀 경북고 등의 화려한 전적과 남우식·황규봉·장효조 같은 고교야구 스타들의 활약상을 담았다.

1982년 프로야구가 개막되고서는 야구팬들의 관심이 프로쪽으로 옮겨졌고, 국흥주의 바통은 '스포츠 서울' 이종남이 받았다. 20년째 줄곧 야구기자의 외길을 걷고 있는 이종남은 여러권의 야구에세이를 갖고 있다. 《두 가슴 한마음》 《사람 좋으면 풀찌》 《야구가 있어 좋은날》 《프로야구 확 뒤집어보기》 등이 그것.

프로야구시대 스타로 떠오른 해설자들도 야구에세이의 필자로 가세한다. 하일성과 허구연이 대표적인 인물. 재미있는 것은 책의 성격도 '구수한 입담'과 '냉철한 논리'로 대별되는 두 사람의 해설 스타일을 따르고 있는 점. 《나는 밥보다 야구가 좋다》(한줄기, 1994)와 《홈런과 삼진 사이》(친구, 1992)에서는 구분이 잘 안됐지만 올해 펴낸 책들에서는 확연히 구별된다. 허씨는 '야구핸드북'을 통해 분석에 치중하고 있고, 하씨는 본격 에세이로 나아갔다. 최근 출간된 《하일성 이야기》(마루출판)는 제목 그대로 라이프스토리다.

골프는 한번 '맛'을 들이면 흠뻑 빠지게

되는 '마력'을 지닌 스포츠. 골프에세이를 집필한 저자들 역시 공히 30년이 넘는 구력을 갖고 있다. 또한 기사시절 골프와 인연을 맺은 것도 공통점이다. 최영정의 《골프는 세상을 바꾼다》(살과꿈, 1997)는 '읽는 골프'를 제안한다. 자신이 직접 '하는 골프'와 코스나 TV에서 '보는 골프'에 더하여 골프 지식이 깊어질수록 골프의 재미가 배가된다는 얘기다.

김태운의 《골프-세인트 앤드루스에서 달나라까지》(지성의샘, 1997)는 골프잡지 《월간골프》에 20년간 연재한 글모음이다. 세인트 앤드루스는 골프의 발상지로 알려진 스코틀랜드의 작은 도시. 이 곳의 올드 코스에서는 세계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하나인 브리티시 오픈이 열린다. 달나라에서의 골프는 1972년 2월 6일 아폴로 14호 우주비행사에 의해 행해졌다.

골프를 어울려 치다보면 사람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김용원의 《골프는 인격이다》(살과꿈, 1996)는 골프와 성품 사이의 함수관계를 다뤘다. 《열 아홉번제의 구명》(신구미디어, 1993)을 펴낸 홍경호 교수(한양대 독문학)는 골프를 잘 못친다. 그런데도 골프에세이를 출간한 사정이 재미있다. 55세 때 늦깎이로 문단에 나오는 계기를 마련해준 〈늑색 꿈을 찾아서〉가 골프를 소재로 한 소설이었다. 이런 연유로 골프 관련 글을 청탁받아 쓴 것이 한권 분량이 되었다.

체육기자가 집필한 스포츠에세이로는 《박갑철기자가 본 스포츠세계》(샘터, 1995), 《함성의 뒤안에서》(이태영, 경찬문화사,

1996), 《공 하나에 얽힌 10만가지 이야기》(이영만, 자작나무, 1998) 등이 있다. 이 책들은 종목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한편, 굵직한 스포츠 행사를 다시 보는 기회도 제공한다.

스포츠에세이의 필자로 직접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와 감독을 빼놓을 수 없다. 《나쁜 녀석》(하늘출판사, 1997)은 미 프로농구(NBA)의 '이단아'이자 '리바운드의 귀재'인 데니스 로드맨의 자서전. 미국에서는 출간되자마자 화제를 뿌리며 베스트셀러에 올랐지만, 국내 반응은 시원찮다.

체육기자·선수·감독 등 필자로

《슈팅메시지》와 《그라운드 산책》(이상 우석, 1997)은 월드컵 국가대표축구팀 차범근 감독의 축구에세이. 《슈팅메시지》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10년간 뚝 경험을 되살렸고, 《그라운드 산책》은 스포츠신문에 연재한 칼럼을 엮었다. 프랑스 월드컵을 맞아 이들 책을 찾은 독자가 부쩍 많아졌다.

야구선수의 자전에세이도 여러권 나와 있다. 《일본을 이긴 한국인》(평단문화사, 1993)은 일본프로야구에서 7번이나 수위타자를 차지한 장훈의 야구인생을 담은 책이

고, 《정면으로 승부한다》(샘터, 1996)는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의 자전에세이다. 《박찬호, 나의 꿈 나의 도전》(두레박)은 LA 다저스에서 맹활약중인 박선수의 책으로 《헤이, 두드》(1996)의 개정판이다.

국내 프로스포츠의 연륜이 일천한 탓에 감독들이 써낸 책은 아직 드물다. 방열 감독의 《농구만들기, 인생만들기》(김영사, 1994) 정도가 고작. 대신 NBA 감독들의 책이 눈에 띈다. 《NBA 신화》(한경북스, 1996)는 '90대의 팀' 시카고 불즈를 이끌고 있는 필 잭슨 감독의 동양철학과 인디언의 행동원리에 근간한 선수조련 비결을 담았다. 《NBA 농구감독에게 배우는 인생과 성공》(현대미디어, 1997)은 미 대학농구(NCAA)에서 풀찌팀을 우승으로 이끈 신화를 창출한 릭 피티노(보스턴 셀틱스) 감독의 성공 안내서.

승부의 세계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감독들의 책은 훌륭한 인생지침서로도 읽힌다. "야구나 인생살이나 5할 이상 승부면 성공한 것"이라 했던 해태 타이거즈 김용룡 감독의 야구철학에서 보듯 1천승을 거두기 위해서는 800번에 이르는 패배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성일>